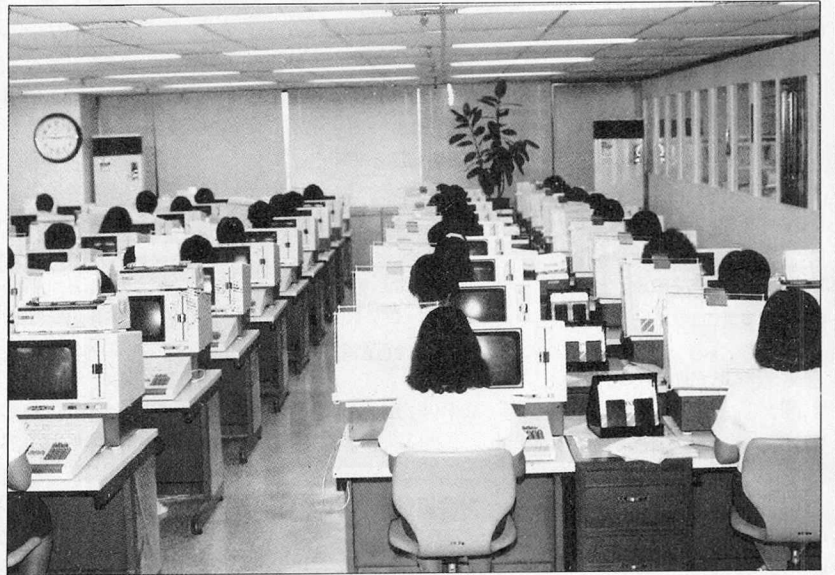


정기간행물 출판기사 색인

- 신문, 잡지 「洪水시대」 예고-작년말 이후 창간, 설립신청 쇄도/일간지 10개 신청, 10여개 준비중/방송...신·구 기독교 전국망 경쟁/주간 40여건, 월간 88건 신청 몰려...불교방송, 교통, 날씨방송도(조선일보 2월14일)
- “역사책엔 민족정신 담겨 있어야”-성신여대 李炫熙교수 「한국의 역사」 전집에서 주장/집필 10년만에 ‘햇빛’...학계서 높이 평가(경향신문 2월15일 朴正鎭기자)
- 장 그르니에 산문집 나와-청하출판사 전 20권 퍼내기/「카뮈를 추억함」 등 3권 선보여...시적 명상, 철학적 內省으로 충만(한국일보 2월16일 金薰기자)
- 「단행본으로 묶기」 새바람-학회연구논문 잇따라 단행본으로 발간/2달새10여권 쏟아져...비매품 틀 벗어나 일반인 관심 유도(동아일보 2월16일 宋煥彥기자)
- 문학지, 계간 시대로-언기법 폐지 따른 잡지등록 자유화 여파...「창작과비평」 「문학과 지성」 등 복간, 「불교문학」 첫선, 「현대비평」도 준비...문단신 지면확대, 질적인 경쟁 통해 수준 향상 기대(동아일보 2월16일 高美錫기자)
- 민중문학 논쟁확산-‘누가 민중문학 담당 주체여야 하는가’에 대해 평론가들 새 방향 모색/金明仁의 「지식인문학 위기론」에서 시작돼...「지식인문학물락」 ‘노동자주의 편향성’ 논란, 일부선 민족-민중문학 한계를 한꺼번에 비판(중앙일보 2월17일 奇亨度기자)
- 정지용, 김기림전집 납본필증 교부-두 시인 전작품 출판 사실상 허용, 다른 납본작가 해금기준 곧 마련(한국일보 2월17일)
- “평론가가 내작품 誤讀했다”-소설가, 시인 9명 「잘못된 평」 비평...작가의 의도 놓친 채 일방적 해석...독자성 무시 논리박약 등 ‘횡포’(조선일보 2월17일 曹良旭기자)
- 「洪以燮全集」 10권 간행-연세대 출판부 본격적인 발간작업에 들어가/올해 내 2권 출간, 90년까지 완간 예정...해방 후 마지막 지사적 민족사학자의 업적 총정리하는 사학사적 의의 지녀(조선일보 2월18일 金泰翼기자)
- 졸업·입학선물, 책이 으뜸-어학사전·백과사전류 무난/국교생은 창작 그림동화집...대학생은 이념 서적으로(중앙일보 2월19일 金敬姬기자)
- 고르바초프 저서 등 러시아 관련서적 붐-올해 들어 벌써 10여종 출간/제한적이지만 사회상 소개 ‘숨통’...동구권 현대서적 출

- 판에 轉機기대(중앙일보 2월22일 奇亨度기자)
- 小説 속 抗日투사 시대따라 변모-계명대 閔玟基교수 日帝下작품 36편 분석...초기엔 ‘투쟁적’, 후기들어선 ‘초라하고 왜소’(조선일보 2월23일 曹良旭기자)
- 서점대형화 전국으로 확산-제주·마산 등 지방도시까지 백평이상 속속 개점/年 1억6천만권 신간 수용위한 공간확보 경쟁(매일경제신문 2월23일)
- 19세기 美비평 대작, 페이타의 「르네상스」 번역서 나와-종로서적에서 출판/문예부흥기 예술비평 9편 실어...마켈란젤로 등 대가들의 걸작 재평가...聖書에서 異敎의 숨결을 찾아내기도(한국일보 2월23일 金薰기자)
- 신학기 대학原書공급 차질없다-美, 리프린트 재고 판매금지 조건/지적소유권 301조 발동 유보/국내 복사본 120%價로 아시아판 공급도 제시(한국일보 2월24일 金龍善기자)
- 중견작가들 공백깨고 ‘글쓰기’ 재개-문예지 복간 등 때맞춰/창작활동에 다시 전념...조세희, 이청준씨 등 70년대 주역들로 주목(중앙일보 2월24일 奇亨度기자)
- 신학기 대학가 原書교재 확보난-美출판물 복제협상타결 늦어져/301조 적용경고에 책 출고 중단...20%이상 비싼 아시아판 구입해야 할 판(중앙일보 2월25일 任載杰기자)
- 꾸준히 팔리는 책...수필류 강세-교보문고, 출간 5년 넘은 책 조사/「무소유」 「살며 사랑하며」 등, 소설은 「광장」 「토지」 「데미안」...‘세대를 넘은 감동’이 독자층 확보한 듯(조선일보 2월26일 曹良旭기자)
- 검인정교과서제도 개선여론 높아-「출판저널」 제14호, 각계의견 특집/집필기간 늘이고 검정내용 공개...5년주기개편 폐지, 매년 심사를(한국일보 2월26일 金龍善기자)
- 컴퓨터출판 크게 늘고 있다-작년 4개사서 올해 16개社로...새달 초 「전자출판연구회」 창립/이전 양질의 책 값싸게 만들 때(서울신문 2월26일)
- 「洪以燮全集」사후 13년만에 출간-丹齋·白巖 이은 민족사학자...연세대, 90년까지 11권 내기로(한국일보 2월26일)
- 시중 ‘우리글 바로쓰기’책들 제구실 못한다-새 맞춤법 제정된 후 혼란 가져와...고시된 새맞춤법 이전 내용 그대로/「책수저」...빨리 전면개정판 내놓아야(스포츠서울 2월26일 윤홍식기자)
- “한자·한문을 배우자” 새바람-학습서 출판·학원강좌 개설 늘어/서점가엔 50여종 등장...학습교양서가 절반 이상/한글세대 사회생활에 필요 느껴 (한국일보 2월27일 金龍善기자)
- 「三淸교육대」-‘악몽의 세월’ 폭로·증언·手記 잇달아 출간/개과천선은 커녕 불신만 남겨...침묵의 시절 인권탄압 속속 밝혀질 듯(중앙일보 2월29일 奇亨度기자)



〈本社 入力室〉

書體·機能·技術· 品質·時間에서

完全히 다른 Computer 組版의 專門業體입니다.

高級人力·校正人力을 節減하십시오.

特別한 作業方法에 의하여 OK를 놓으면 當日로 印刷를 할 수 있는 「東國」의 시스템은 利用을 해 보셔야 얼마 만큼의 利益이 큰가를 實感할 수 있습니다.

數式·古字·學參· 辭典·教科書 등

잘 안되는 것이 없습니다.

Computer 組版에 失望을 하신 분,
一般的인 Computer 組版만
아시는 분을 위하여
.....

하루에
3,000
페이지

서울特別市 麻浦區 孔德洞 257~3



東國電算株式會社

☎ (718) 5011 ~ 2·4071 ~ 2